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 성남

성남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현대도시로,
역사의 전통성을 그대로 계승·발전하고 맑고 푸른
환경을 유지한 청정 도시이며, 진취적인 도시이다.

성남의 산업구조

예전의 경기도 광주시의 일부와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으로 이루어진 산간벽지에 불과
하였던 성남이 국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시킨 인공도시로 부상하면서, 총 316,000여
세대에 전체 인구 10만여명의 성남시로 탄생하였다.

그 중 47%가 산업전선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90.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
다.

산업단지로는 성남 1, 2, 3공단이 있으며, SKAPT형 공장, 중앙인터스피아, 중앙인터스피
아Ⅱ, 현대 I 벨리, 포스테크노 등 총 14개 단지에 700개 업체가 입주하여 92.4%의 가동율을
자랑하고 2003년 9월말 현재 산업근로자는 20,641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 중 89.4%가 3차산업 및 서비스업종에 종사중이고, 나머
지 10.6%는 1,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도시임을 보
여준다.

업체 규모면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8.7%를 차지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이
91.3%여서, 산업재해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역에는 산업재해의 온상이라 일컫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재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안전협회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평균 재해
율이 2003년 11월 말 0.5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2002년 평균 재해율 0.71보
다 낮은 것이고, 재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2003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활동
을 전개한 실적이며, 민간기관으로써 지역산업안전에 귀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협회 성남지회는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성남의 특성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건설현장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주범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실히 안전인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한국남부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의 김호근 품질안전과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중부임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의 박금태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남부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 김호근 품질안전과장〉〉

지난 4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전력사업의 주역이며, 인간존중, 자연애호, 사회공헌을 기업이념으로 삼아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남부발전(주)의 7개 발전처 중 분당복합화력발전처의 김호근 품질안전과장을 찾았다.

한국남부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필, 발전자회사 중 두 번째의 KOSHA 18001 인증, 무재해 9배 달성과 금년 5월 무재해 10배 달성을 눈앞에 두고, 회사 안전성평가 1위 사업장 지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제11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에너지사업 분야 수상 등은 2002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이룩한 성과이다.

이런 성과를 거둔데에 적극적인 회사의 지원이 있었으나, 안전을 담당하는 김호근 품질안전과장(이후 안전과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호근 안전과장은 2000년 7월부터 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경력으로 보면 그리 풍부한 경험은 아니지만 결과만 보더라도, 김호근 안전과장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케 한다.

지금의 김호근 안전과장이 있게 한 아픈 옛 기억을 살포시 꺼낸다. 79년 이곳에 입사하여 설비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던 이야기였다.

이 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김호근 안전과장은 안전관리자를 꿈꿔 왔다고 한다. 그 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취득 후 자원해서 안전업무 부서에 온 것이 안전업무를 하게 된 계기이다.

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타의에 의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안전관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이런 추진력이 나오는 것인가 보다.

금년 2004년을 KOSHA 18001 정착을 위한 내실의 해를 만들겠다는 김호근 안전과장은 안전경영대상 수상 사업장에 걸맞는 우리의 의상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한다.



▲ 김 호 근 품질안전과장

이러기 위해서는 안전의 생활화를 아울러 강조한다.

안전은 곧 생활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김호근 안전과장은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적이다.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달려 있는 안전의식을 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가끔 안전업무를 오래하다보면 타성에 젖는 안전인을 가끔 보게 되는데, 나 자신만은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우리 안전인의 위치가 많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가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정량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긍지를 잃지 말것을 당부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중부임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 박금태 기획관리실장〉〉

97년 5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국산 목재와 임산물을 수집·선별·가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중부임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강대재 사장)에서 박금태 기획관리실장(이하 실장)을 만났다.

그는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최상의 기술력과 최첨단 기계설비로 다양하고 새로운 목조 주택, 조경시설물, 체육시설물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산림자원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 20여명, 일용 계약직 36명이 종사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대규모 사업장보다 성실히 수행하는 곳이다.

안전전문기관인 안전협회로부터 안전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박금태 실장이 있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이 되어가고 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절단재해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2000년부터는 절단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무재해 달성이 어려운 이곳에 무재해 500백만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장비 현대화, 철저한 안전교육, 강대재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을 하였지만, 박금태 실장의 헌신적인 안전활동의 값진 성과라 하겠다.

특히 안전교육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는 박금태 실장은 반장급의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수토록 하고, 여기에 친절교육과 인성교육까지 병행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 박금태 기획관리실장

했다.

안전은 나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박금태 실장은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한 상태 그대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의 본업이라고 말한다. 즉, 안전하게 귀가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에는 계속적으로 무재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하며, 아직까지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무재해 500만시간을 달성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다진다. 이로 하여금 안전관리 우수모범사원을 선정하여 국내 여행을 보내는 것도 박금태 실장의 작은 소망이다.

재해는 예고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눈앞에 두고 있는 무재해 목표 500만시간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무재해 600만시간까지 달성할 것을 기원한다.

재난방지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방재본부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자주방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율방재체제 기틀을 만들었다.

자주방재 태세에는 먼저 의식 고취를 위해 5월은 자연재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설정하여 각종 재해요인을 지역주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홍보는 반상회 및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와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써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재교육 및 훈련은 각급 유관기관의 방재책임자와 시 방재업무 담당자,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시·구·동의 일선 방재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단계별로 전과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수문관리 요원 및 중요시설 관리책임자, 하천 감시원에 대한 방재교육과 방재요원의 업무 숙달과 재해대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방재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덕 기자〉

